

학교給食확대서 두르자

심포지엄서 학자들 한목소리 주장

영양사회(회장 曹貞淳)와 한국영양학회(회장 蔡範錫)가 서울 汝矣島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21일 대안 심포지엄을 열고, 학교급식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비판편찬에 의한 영양실조, 그리고 아직도 우리 주변에서 사각지대에 걸려있는 이 같은 영양불균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급식이 크게 확대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



어린이들이 점심시간에 학교급식으로 식사하고 있다. 어린이들의 영양불균형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학교급식이 실시돼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식생활개선 사회성교육 효과

선발영양사를 의했다.

학교급식의 중요성에 대해 연세대 李良子교수(식품영양학)는 『산업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릇된 영양정보나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영양과잉, 영양결핍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제 학교급식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한 식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철저한 영양정보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급식은 식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교육의 장이 될뿐 아니라 교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 인간관계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적었다.

심포지엄은 결선부를 열고 화업경쟁이 올라가며 대인관계가 좋아졌다는 긍정적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연세대 曹貞淳교수(식품영양학)는 『국내의 학교급식의 현황에 대해』 53년의 국민조사로 시작된 한국의 학교급식은 72년 자립단체단계를 거쳐 77년 완전급식으로 전환한지 10년이 지났는데도 겨우 전체국민학교의 10% 전(전)은 『산업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릇된 영양정보나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영양과잉, 영양결핍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제 학교급식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한 식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철저한 영양정보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급식은 식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교육의 장이 될뿐 아니라 교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 인간관계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적었다.

도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데 90년대에는 이를 6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학교급식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서울대 蔡範錫교수(영양학)는 『영양학의 발달로 인해 영양실조, 영양과잉, 영양결핍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제 학교급식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한 식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철저한 영양정보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급식은 식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교육의 장이 될뿐 아니라 교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 인간관계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적었다.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연세대 曹貞淳교수(식품영양학)는 『산업사회가 복잡해질수록 그릇된 영양정보나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 영양과잉, 영양결핍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이제 학교급식을 통해 자라나는 세대의 건강한 식생활을 바로 잡아주는 철저한 영양정보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급식은 식생활습관을 바로잡는 교육의 장이 될뿐 아니라 교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 인간관계발달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적었다.